

# 재택근무 경험자의 약 60% 사무실 출근보다 협업·소통 더 수월

| 조사대상 : 남녀 직장인 830명 | 조사기간 : 22년 6월 27일~28일(이틀간)

Q. (경험자 대상) 재택근무를 하면서 협업, 소통을 얼마나 수월하게 했나요?



Q. 업무 소통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나요? (복수응답)

- 1위 협신저, 채팅 (77.5%)
- 2위 화상회의 (62.7%)
- 3위 메일 (44.4%)

Q.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일까요? (복수응답)



- | 필수 조건               | 비중    |
|---------------------|-------|
| 재택근무 상세 메뉴얼 구축      | 48.6% |
| 원격근무 최적화 시스템 도입     | 48.1% |
| 잠비 및 인터넷 비용 지원      | 33.6% |
| 점기 오프라인 미팅 위한 공간 지원 | 33.0% |

'직장인의 재택근무 경험 및 생각'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 휴넷, 주 4일제 실시…매주 금요일도 휴무

입력 2022.06.30. 오전 10:29

방은주 기자 >

추천 댓글

| 6개월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시행...조영탁 대표 "모험이자 도전"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은 7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이 휴무인 주 4일 근무제를 도입, 본격적인 주 32시간 근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 SK, 우아한형제들 등이 격주 주 4일 근무, 32시간 근무제 등 근무시간 단축 실험에 들어간 가운데, 휴넷은 매주 금요일을 휴무로 지정한 주 4일 근무 제도를 시행한다.

앞서 휴넷은 혁신적인 근무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2019년 말부터 '주 4.5일 근무'를 실시했는데 이번에 2년 만에 '주 4일'로 확대 시행한다. 휴넷은 이전에도 ▲주 1회 재택근무제(2021년) ▲무제한 자율휴가제(2017년) ▲시차출퇴근제(2014년) ▲학습휴가제(5년 근속 시 1개월 유급휴가, 1999년) 등 선진 제도를 빠르게 도입했다. 주 4일제를 시행해도 앞서 운영중인 각종 근무와 휴가 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주 4일제 도입에 앞서 휴넷은 지난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일주일 중 원하는 날을 선택해 쉴 수 있게 했다. 휴넷은 "시범 기간 동안 직원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것이 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인다고 판단, 직원들이 가장 많이 휴무일로 택한 금요일에 전 직원이 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영탁 휴넷 대표는 "주 4일 근무제는 큰 모험이자 도전이다. 직원들이 3일간 재충전하고, 4일간 몰입도 있게 일해 자신과 조직에도 좋은 역할을 해주길 믿는다"면서 "4.5일제 도입 이후 자율과 책임의 문화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준 것처럼 4일제에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줘 우리나라 기업들의 근무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aaS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어로 직역하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과거에 소프트웨어는 각각의 PC에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치한 후 제각각 다른 기기 환경으로 인해 결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몇 십대의 PC에 설치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비용도 커지고 관리도 힘들어집니다.

2000년대 들어 고속의 통신 환경이 정비되면서 벤더편에 두었던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브라우저 경유로 이용하는 모 습의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경유 모델의 서비스는 광화선의 보급과 함께 일반화되었고, 진화를 거듭하여 SaaS라는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 알리바바클라우드, 탄소 배출 관리 플랫폼 출시

입력 2022.06.30. 오전 10:10

김우용 기자 >

추천 댓글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사업활동 및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 분석 및 관리하는

예를 들자면 Google이 제공하는 Gmail과 Google 닉스 등 일상이 어플리케이션 및 Salesforce처럼 많은 비즈니스 서

지 엑스퍼트'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애플리케이션, Google Cloud 제공하는 SaaS와 Google Cloud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는 Salesforce가 많습니다.

이 플랫폼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와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시하여 고객이 비즈니스 활동에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리바바그룹은 2021년 탄소 중립 목표로 기존의 스코프 1, 2, 3 범위를 넘어선 '스코프 3+'의 개념을 정립,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공유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에너지 엑스퍼트는 알리바바 그룹의 '스코프 3+' 달성을 위한 실행안으로 고객이 알리바바 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에너지 엑스퍼트 플랫폼은 고객의 탄소 발생량 계산 및 보고 과정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지속 가능성 영향 통계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러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PAS 2060 및 ISO 14064 탄소 중립성 기준에 기반하여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원과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식별할 수 있다. 공개된 배출 요인 데이터 세트와 에너지 엑스퍼트 플랫폼 전용 데이터 세트로부터 사전 구축된 계산 모델을 통해 고객의 탄소 발자국도 수치화할 수 있다. 시각화된 대시 보드와 온라인 보고서를 통해 실시간 탄소 배출 패턴과 지속 가능성 진행 성과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한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기반 클라우드로 CSAP 획득

입력 2022.06.30. 오전 9:27

임유경 기자 >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쿠버네티스 기반 서비스형 인프라(IaaS)로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CSAP는 공공 기관 도입을 위해 요구되는 보안 사항을 준수했는지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필수로 획득해야 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6월 IaaS 보안 인증을 획득하고 같은 해 7월 공공기관용 '카카오 i 클라우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한 보안 인증은 최초 획득 후 1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사후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기존 인프라를 관리형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개선하고 인증 평가를 통과했다.

생활에 AI를 더하고 일에 AI를 더하여 더 스마트한 비즈니스, 더 특별한 일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카카오의 AI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로 한층 더 진화시켰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금융, 유통,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국내 대표 IT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 「플랫폼」을 제공하는 PaaS

SaaS와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 중 하나로 「PaaS」가 있습니다. PaaS는 「Platform as a Service」의 약어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컫고,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기 위해 실행 환경을 모두 갖춘 환경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수 있고,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본 OS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스펙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측면에서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Google App Engine이 PaaS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프라」를 제공하는 IaaS

PaaS보다도 한층 더 단순한 형태가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입니다. 「이어스」라고 읽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이어스」라고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SaaS가 소프트웨어, PaaS가 플랫폼을 제공하듯, IaaS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IaaS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의 기반이 되는 서버와 스토리지, 파이어워크 등의 인프라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스펙과 기본 OS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SaaS와 PaaS와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유연하고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작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모두 지식이 필요하고 네트워크와 보안 문제에 관해서도 직접 환경 설정을 해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보았을 때 건축 자재만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